속리- 화양동 탐방안내 시나리오(성인)

1. 기획목적

○ 가족단위나,성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도록 만든 시나리오입니다.성인들을 대상으로 편안하게 설명이 가능한시나리오입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성인(20명)
○ 대상지 : 성인-화양동 자연관찰로
○ 준비물 : 리플렛, 안내서
○ 계절 : 4계절
○ 소요시간 : 1시간
○ 관찰로 길이 : 300m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해설자 소개 및 참가자들간의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 사는 곳, 교통수단... 자연스럽게 건네면서 탐방객의분위기를 파악한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OOO 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동.식물, 자연경관을 국민모두가 즐기고 후손에게 자연그대로 물려 주기위해 국가에서 엄격히 보호 관리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외국의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특히 귀엽다고 애완견등을 데리고 오시면 개의 분비물을 통하여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식물의 종자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국립공원은 자연 상태의 종자은행으로 보관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내의 동식물을 채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속리산 국립공원 화양분소인데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지요.이곳을 탐방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자연 관찰 로에는 자기 해설 판에 주변의 자연을 담아 표현했으며, 간단한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계곡을 옆으로 탐방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나무 그늘 에 앉아 쉬면서 산봉우리를 (도명산) 바라보기도 하고, 물이 맑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을 관찰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연체험학습 장소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이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 화양동이름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황양나무 (지금의 회양목)가 많아 황양동이라 불리다가 600여 년 전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중화의 화 일양내복의 양 을 따서 화양동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아름 들이 느티나무 길로 들어서며)

느티나무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요? (도깨비불---)

(3) 화양동의 터줏대감 느티나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어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신령스럽게 여겼지요.

이곳의 나무를 보면 예전의 마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에는 왜 느티나무를 심었을까요?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서 이곳에는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또한 통풍과 적당한 햇빛을 아래로 보내줘서 툇마루가 썩지 않아, 아마 우리조상들은 느티나무를 심었나봅니다. 수명이 길고, 여름이면 넓은 그늘을 만들어 정자나무로 마을 사람들의 자연스런 집합처가 되어 사랑방이 되었고, 여기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지혜를 얻기도 했다 네요.

봄의 신록, 여름의 성 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나목 등 사철 변해 가는 아름다움은 어떤 신앙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하여 양반나무라 불릴 많 큼 선조들의 사랑을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4) 계곡의 생물!

계곡은 숲이 간직한 아름다운 생명의 젖줄인 물의 발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강의 물을 드시는지 아시나요?
화양계곡물의 흐름을 노래에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계곡물 흘러서~~~ 박대천(박달천)물!~~~ 모여서 칠성댐 물!~~~ 모여서 달래강물! ~~~모여서 충주댐물!~~~ 모여서 한강물!~~~모여서 서해바다! 랄-랄랄랄 라 랄랄라---- 짝짝짝

예전에는 어느 계곡에서나 흔히 볼 수 있던 물고기, 수서곤충 및 주변 식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물속을 조용히 들여다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아주작고 귀여운 물고기 몇 마리가 왠지 바삐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발자국 소리에 놀란 걸까요?





아님 배가 고파 먹이를 찾고 있는 걸까요?
자! 물고기친구들을 불러보겠습니다? (풀씨를 살며시 물위로 던져본다)
계곡의 물고기는 주변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 식물의 눈, 줄기, 씨앗, 돌에 붙은 미생물을 먹는데, 감각이 예민해 위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느낌을 째 빨리 감지한답니다.

계곡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나무 조각이나, 잎을 찾아볼까요?
움직이는 나무 조각 속에서 얼굴을 빼 꼼이 내미는 녀석의 이름은 날도래입니다.
날도래 유충은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재료를 들을 이용했나요?

주변의 나무 조각, 잎, 그리고 조약돌등으로 집을 만들었네요.
날도래유충은 왜! 무거운 집을 이고 다니는 걸까요?

아마도 집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물고기나 장구애비 같은 무서운 천적에게 금방 잡혀 먹혔을지도 몰라요. 조그만 녀석이 무척 지혜롭죠?

(5) 계곡 주변의 나무!







계곡 건너편에 하얀 수피의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은 은수원사시(현사시) 나무랍니다.(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를 인공 배양하여 만들었다네요) 수피가 하얗고 다이아몬드무늬를 갖고 있으며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보기 어렵지요. 사시나무 떤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잎 뒷면이 흰빛을 띠고, 잎자루가 워낙 길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팔랑팔랑 움직이는 것이 나뭇잎에 부서지는 햇살과 함께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여서 멀리서 보아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수피는 더운 열을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기도하고, 잎자루가 긴 것 또한 물을 빨리 빨아들이려는 노력과 함께 열을 발산하는 전략이랍니다. 봄에 꽃가루가 날려 눈병과 피부병을 일으켜 불편을 주기도 하고 빠른 성장으로 번식력 또한 왕성해 고민거리로 대두 되고 있답니다.

(6) 달뿌리풀을 배경으로 찰칵!



계곡주변에서 잘 자라는 풀이지요. 뿌리가 땅위로 뻗어 자라므로 마디마디 수염뿌리는 자갈, 모래를 끌어안아 계곡의 산사태를 막아줍니다.

하천 주변에서는 사자머리 갈기 모양의 갈대를 볼 수 있는데, 달뿌리풀과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요. 갈대는 땅속으로 뿌리가 자라며 마디는 가는 대나무 닮아다 하여 가는대나무=갈대입니다. 다음부터는 구분할 수 있겠지요?

(7) 숲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숲에는 나무와 풀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볼까요?

- - - - -

고라니, 노루, 다람쥐 , 장수풍뎅이, 하늘소등 많은 곤충, 생명들이 살고 있지요.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숲에서는 모두가 소중하답니다.
애벌레 좋아하나요?

- - - -

애벌레는 무엇을 먹을까요?

- - -

나뭇잎을 갉아먹어 살아있는 나무를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애벌레가 없으면 새들은 어떻게 될까요?

- - - -

그럼, 숲에 새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 - - -

새 한 마리가 1년 동안 잡아먹는 벌레는 얼마나 될까요?
약 8만5천 마리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박새가 많은데 ,새끼를 키우는 몫까지 하면 일년에 약 8만5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만일 새가 없다면 많은 벌레들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 나무가 죽게 되고 우리는 푸른 숲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질서는 나름대로 순리를 갖고 있지요. 징그러운 벌레도 먹이사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 풀, 곤충, 동물 등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가꾸어지고 있어 그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숲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 - - -
오늘 밥 먹었을 때 식탁의 반찬이 무엇 이었나요?
- - -
토끼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사슴. 고라니, 초식동물들)

토끼는 풀을 먹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그리고 죽어서 나무나 풀의 영양분이 되고, 풀은 자라면 토끼의 먹이가 되고, 이것을 '먹이사슬 이라고 하지요.
숲에서는 이러한 순환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숲은 울창해지는 거랍니다.
숲은 사람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사람은 숲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하나, 동.식물 숲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숲의 가족을 이동시키는 것은 생태를 파괴하는 거지요.

숲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어요.
자연을 알게 되면 숲의 가족을 보게 되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끼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숲의 가족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숲이 건강해야 하고, 숲이 건강하려면 우리 모두 숲을 사랑해야겠죠!
숲에 오시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의 나쁜 병균을 소독해준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큰데 이것을 우리는 산속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산림욕이고 하지요.
또한 계곡의 풍부한 음이온이 포함된 신선한 공기는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8) 계곡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나라의 땅은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쯤 전에 생겨났습 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오래된 곳이지요. 계곡 은 우리나라의 산이 형성되면서 생긴 지형이지요. 좁은 땅에 산맥(대간과 정맥)이 많은 관계로 다른 나라사람들 은 산이 많은 나라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지요. 바다에 이르는 큰 강물도 실제로는 이미 땅 속에 스며들었던 비가 흙 속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뒤 다시 솟아오른 계곡의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샘에서 나온 물들이 서로 만나 계곡을 이루고, 다시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 흐를 때 비로소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시작되는 근원지인 계곡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크기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계곡은 산과 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내리는 비를 계곡으로부터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전체적인 물의 순환을 이끌어 내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모래 되는 과정의 노래 아시는지요? 함께 불러볼까요? 바윗돌 깨뜨려-돌덩이-깨뜨려-돌멩이-깨뜨려-자갈돌-깨뜨려-모래알 랄-랄랄랄라 랄랄라 ----
(짝짝짝 ---)

계곡은 정말 소중한 곳이지요.
우리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근원은 바로 계곡이지요. 죽어가는 물 을 살리려면 먼저 물의 원천인 계곡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지요.
계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 록 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자연 관찰 로를 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힘을 모아 볼까요?
제가 짜연은 !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 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
모두 박수 짝짝짝



(9) 화양서원으로 출발!







화양동 계곡은 조선시대에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중임을 역임한 우암 송시열이 자연을 사랑하여 은거하였던 곳이었으므로 계곡 주변으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자취가 많습니다. 암서재. 만동묘, 화양서원, 석각이 산재해 있습니다.

화양구곡은 중국의 주자가 무이 산 계곡에 무이 정사를 짓고
그곳의 경치를 성리학을 공부하는 단계별 과정에 빗대어 노래했다는데요. 이곳의 경치도가 무이구곡에 버금가므로 계곡주변의 뛰어난 경관9곳에 이름 지었다고도 합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대화하듯)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자연을 정서적인 의미에서 친근한 대상으로 생각하여, 건축물 하나를 세울 때도 주변의 자연 경관을 고려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자연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여러 문화 유적으로 자리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서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였고 학문을 수양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서원은 여러 선비들의 뛰어난 선현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들의 큰 뜻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던 곳으로, 서원이 자리 잡은 곳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에 있는데, 이는 속세를 벗어나 학문에만 전념하라는 의도에서였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위에 ,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 정자가 있지요.
암서재입니다. (주체사상과 의리정신을 갖고 나라일 걱정과 후학들을 가르치며 주자학을 연구했던 송자의서재.)
맑고 깨끗하여 거짓이 없는 자연을 닮으려는 심성! 옛사람들의 순수함이 느껴지나요? 계곡의 바위나 소나무와 어울려 자연스럽지요.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재향하는 곳으로,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원 이었는데요, 유생들의 기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제수전의 봉납을 강요하고 화양묵패의 폐단으로 철종 9년(1858)에 폐쇄되었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말을 타고 만동묘를 지나다가 하마비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지 않자, 만동묘지기에게 발길로 걷어차이게 된 것이 서원 철패령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만동묘! 중국의 황하가 백번 천 번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을 향하게 된다는 만절필동 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명나라황제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요.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황제이며, 의종은 청나라에 나라를 빼앗긴 명

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풀려난 봉림대군이 조선의 열일곱 번째 왕인 효종으로 등극하여,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만동묘는 청나라 오랑캐를 무찌르는 상징적인 장소로 되었습니다.





화양계곡에서 도명산을 오르는 길은 화양3교에서 오르는 길과 학소대앞 학소대교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며, 정상 못 미쳐 도명산 마애삼존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설화에 의하면 (옛날 이산바위 속에 황금밀탑이 있어 탑의 그림자가 중국에 비치니 당나라 고조가 사람을 보내어 찾았으나 탑이 보이지 않자 바위를 깨고 탑을 찾은 뒤 바위에 장육미륵불상3구를 새겨 진호하였다.) 맨 우측의 제일 작은 불상의 수인으로 보아 지장보살로 추정.





화양동 계곡은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문장대. 청화산. 조항산. 대야산. 장성봉. 희양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643m으로 높지 않아 산행하는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지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요. 이곳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해주세요. 자연은! 우리의 미래!